

근대 제주지역 지식인의 외부세계 소통과 활동*

** 김 동 전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1. 머리말
2. 근대 제주유배인과 제주지식인의 교류
3. '조천김씨' 문중의 외부세계 소통과 활동
4. 맺음말

[국문요약]

근대 제주지식인들은 다른 지방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근대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함으로써 제주라는 지역적 공간과 전통의 문제를 보편적인 문제로 고양시키고, 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하였다.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중앙과의 원활한 소통에는 제약이 있었지만, 일단 제주인들은 최익현, 김윤식 등 제주 유배인들을 통한 중앙과의 소통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위 ‘조천김씨’로 일컬어지는 김해김씨 조천리 이동파 문중 출신의 김응전과 김응빈 형제의 끊임없는 서울 왕래와 대원군, 민태호와의 교류는 제주지식인들이 중앙정치인들과의 소통을 의미한다.

김윤식과 이동파 문중의 김응빈을 중심으로 주도된 204회의 ‘굴원’ 시회는 제주와 중앙의 의식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었다. 중앙의 의식세계로 대표되는 제주 유배인 집단은 김윤식으로 결집되어 있었고, 지방의 의식세계를 대변하는 집단은 김응빈을 중심으로 송두옥·김희정 등이 결합되어 있었다. 이 둘의 만남의 장이 곧 ‘굴원’ 시회이며, 이는 중앙과 지방이 서로의 소통을 통한 결합의 장이었다.

또한, 조천김씨 이동파 문중 출신 가운데 송산 김명식은 제주 조천리 외에, 서울, 일본의 동경과 오사카를 왕래하면서 당대의 사상가들과 교류하면서 레닌과 러시아혁명, 마르크스주의 등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그 후 사회혁명당, 고려공산당에 가입하여 주요 간부로 활동하였으며, 조선청년연합회, 조선노동공제회 창립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동아일보와 신생활 잡지를 통해 그의 사상을 대중들에게 전파시킴으로써 무산계급의 혁명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였다. 당시 국내외에서 운동의 핵심에 위치했던 제주출신 무정부주의 항일운동가였던 고순흙, 노동운동가인 김문준, 양제박, 홍순녕, 혁신적 지식인 이성태 등과 밀접한 교류를 통해 사회주의 운동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였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4-AM0010). 이 글은 2006년도 제49회 전국역사학대회에서 발표한 『근현대 제주지역 지식인의 외부 세계 소통과 지방전통의식』(제49회 전국역사학대회, 『역사에서의 중앙과 지방』, 충북대, 2006)의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머리말

중앙으로 모든 기회가 집중되고 있던 전근대사회에서 제주인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섬’이라는 지역적 요인 등으로 중앙정치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다만, 濟州子弟로 서울에 상경해서 관직에 종사하는 제도라든가, 과거제도를 통한 제주의 인재를 중앙으로 등용하기는 했지만, 제주는 여러 부분에서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제주자체의 제도는 중앙에 제주인을 인질로 잡아두는 성격이 강해 제주인들에게는 오히려 ‘不貴京職’ 현상이 만연해 있었다. 제주인들에게 과거응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경제적 여건 및 바다를 건너야 하는 지리적 환경 때문에 과거입격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제주에 파견되었던 목민관(제주목사, 제주판관, 대정현감, 정의현감)이나 어사(진홀어사, 안핵사 등), 제주에 유배되었던 유배인들이 제주를 떠난 후에도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이들을 통한 중앙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잦은 왕래를 할 수 없는 한계로 중앙과의 소통에 일정한 제약이 있었다.

한편, 표류·표도를 통한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도

1) 장한철의 경우처럼 바다를 건너다 이국으로 표류하는 경우도 빈번하였고, 과거에 응시하기 위한 노자(路資)를 마련하느라 논과 밭을 팔았다가 과거에 합격하지 못해 집안이 꽤 가망신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과거에 응시하는 제주인에 대한 조정의 배려는 남달랐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지역의 문과와 무과 입격자들에게는 국왕이 몸소 행하는 과거인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할 수 있는 자격[直赴]을 주었다. 또한 전시에 직부된 제주인들은 시험답안지에 특별히 ‘제주’라는 지역명을 기재토록 하여 제주인의 경우 최종 합격에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과거 입격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였다. 영조 15년(1739)에 급제한 김계중에게는 나이 77세의 나이에 응시하자, 특별히 우대하여 6품직을 하사하였다. 영조 41년(1765)에는 72세의 나이에 직부에 응한 김형중에게 특별히 전적(典籍)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조 18년(1794)에는 과거에 입격하였으나, 나이 81세로 전시에 응하지 못한 대정현 유생 김명헌을 특별히 합격시키고 제주목에 어사화와 홍패를 내려 본인에게 수여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통한 제주인들의 중앙관직 진출은 제한되었으며, 과거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문관으로 실직을 역임한 자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하였다. 즉, 김비의 일행의 오키나와 표류, 장한철의 표류, 김대황의 안남 표류, 그 외 일본과 중국에 표류되었던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면서 다양한 외부 세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혹은 하멜일행의 표류처럼 제주에 표도한 이국인을 통해 제주인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 나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으로 지속적으로 제주인들의 의식 세계를 외부로 확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어떻든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우마는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든가, 제주를 ‘절해고도’나 ‘변방’으로 칭하는 경우든가, 바다 건너 있는 고을이라는 의미를 갖는 ‘濟州’란 지명도 따지고 본다면 제주라는 지방적 관점이 아니라, 중앙적 관점이라는 시각에서 나타난 말들이다. 이 속에는 중앙우월주의와 이에 종속된 지방이라는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출륙금지 등 여러 지리·경제적 요인으로 중앙과의 소통이 그리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던 제주사회는 19세기에 이르면서 육지상인들이 빈번하게 제주를 드나들면서 제주인들의 외부세계와의 교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 제주지역에서 전개된 일련의 역사적 사건은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더욱 가능하게 만들었다. 즉, 영국사마랑호 등 외국 선박의 출현, 김정희·최익현·김윤식·박영효 등 중앙 정치 거물의 제주유배, 일본인들에 의한 제주어업의 불법적 수탈, 1862년(강제검), 1898년(방성철), 1901년(이재수) 제주민란 등 일련의 민란 뿐만 아니라, 한말 새로운 교육과 문물의 유입, 의병항쟁, 일제 강점기의 민족해방운동 등 제주 지역사회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나갔다.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전통적 교육체계를 넘어 새로운 학문 및 새로운 東道西器를 수용할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지만, 지방에서는 이를 실천적으로 옮기기에 한계가 있었다. 한말 제주지식인들도 다른 지방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경성 체험 또는 해외 체류 경험을 통해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접촉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서로의 대립 갈등을 넘어 소통을 통한 근대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함으로써 제주라는 지역적 공간과 전통의 문제를 보편적인 문제로 고양시키고 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했다.

본래 근대 제주에서 태어나 성장한 제주지식인들이 제주라는 의식세계를 벗어나 어떻게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통해 중앙과 세계로 그들의 의식세계를 확장시켜 나갔으며, 그러한 소통이 제주 지역사회의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제주지식인들이 제주 뿐만 아니라, 중앙과 세계에 대한 인식과 활동,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인적 교류, 제주 지역에서의 그들의 활동과 제주지역 사회의 변동을 연계해서 살펴야 할 것이다. 당시 활동했던 모든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삼고 살펴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근대 제주유림층의 동향과 제주지식인의 성장요소를 제주에 유배되었던 최익현·김윤식과의 교류 속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근대 제주지식인들 중심에 자리했던 소위 ‘조천김씨’로 알려진 金海金氏 三賢派 朝天里 梨洞 문중²⁾을 주목하였다. 이동과 문중은 김윤식의 지적처럼 당시 제주관관 등 수령 역임자만 8명이 생존해 있을 정도로 제주의 최대 閥門이었고,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현실 인식에 따라 일제의 문화정책에 동화해 나가는 친일부류와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부류로 양분되어 나갔다.

2. 근대 제주유배인과 제주지식인의 교류

1) 면암 최익현의 제주 유배와 영향

근대 제주의 유림은 기호학파의 이항노 계열인 華西學派 계통이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고종 10년(1873) 대원군의 실정을 비판하는 상소

2) 김해김씨 삼현파 조천 이동 문중은 소위 ‘조천김씨’라 불린다. 김해김씨 삼현파에 속하며, 이들은 조천리 中洞 조천비석거리가 있는 ‘梨洞’에 주로 거주하였기 때문에 ‘조천김씨’ 혹은 ‘조천 이동과 문중’이라고 부른다. 朝天里는 조선시대 제주목의 좌면(신좌면)에 속하였으며, 제주의 관문으로 조천진성과 연복정이 위치해 있었다.

를 올렸다가 문제가 되어 제주에 유배된 최익현이 제주 유림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하였기 때문이다.

고종 10년(1873) 11월 4일 유배형에 처해진 최익현은 동년 12월 5일 謫所인 제주목 성안 尹奎煥³⁾의 집에 도착한다. 그리고 고종 12년(1875) 2월 8일(병자)에 고종의 특명으로 유배형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解配에 대한 공식적인 공문이 도착한 것은 고종 12년(1875) 3월 16일이다. 그 후 최익현은 굴림서원을 찾아 배향하고(3월 25일), 한라산 등정(3월 27일) 등 제주에서 지내다가 4월 12일에 제주를 출륙하였다. 최익현의 제주 유배형의 기간은 공식적으로 1873년 11월 4일~1875년 2월 8일이다. 그러나 실지 그가 유배로 제주에 머문 것은 1873년 12월 5일~1875년 4월 12일이다.

면암 최익현의 영향을 제주사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배 기간 동안 제주유림에 대한 교학활동과 1909년 제주의병, 비밀결사체인 集義契의 결성 등이다.

그의 師友錄에 기재된 제주 유림은 金羲正이 유일하지만, 그와 從遊했던 제주 유림으로는 安達三·姜基奭·金龍徵·金堧·金致鎔·金養洙·李基璫·姜哲鎬 등이 있다. 특히, 안달삼은 기정진의 문인이기도 했으며, 강기석은 추사 김정희와 사우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기온과 강철호는 면암과 매우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면암과 이기온의 사제동행을 기념하는 유적으로 문연사가 남아 있다. 1931년에 창설한 문연사는 면암과 이기온의 유덕을 추모하여 매년 정월 중순에 향사하는 제단으로서 문연사제는 현재도 지내고 있다. 문연사의 옛터에는 면암이 식수한 나무가 고목이 되어 있으며 이기온과 면암의 만남을 기려 刻石한 『師長樹抱且拜』라는 글이 남아 있다. 문연사제는 제주유림에게 師表의 상징이었다.⁴⁾

3) 『면암집』 『연보』에는 尹奇福으로 나타난다. 같은 인물로 2개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4) 고창석·양진건, 『제주도 유배에서의 면암 최익현의 교학활동연구』, 『탐라문화』 제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양진건, 『면암 최익현의 제주교학활동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24권 제1호, 한국교육사학회, 2002 참조.

1909년 제주의병의 의병장이었던 高承天(별명 仕訓)은 최익현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았지만, 그의 척사론을 본받아 스스로 義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사실은 고승천이 면암 최익현의 순국 소식을 듣고 김석윤과 의병창의를 결심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즉, 고승천은 그의 제자 김만석을 장성에 보내어 기우만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노상옥을 추천 받기에 이른다. 노상옥은 1909년 제주의병에서 의병의 훈련을 담당했던 장본인이다.⁵⁾

다음으로 집의계의 결성⁶⁾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이응호였다. 그런데 이응호는 면암과 더불어 교류하였던 이기온과父子관계에 있었으므로 면암의 계통이라 할 수 있다. 집의계 12인 중에 직접 면암의 학통을 이은 사람으로는 김병로·강철호를 꼽을 수 있으나, 그 외로 김좌겸·김병구·김리중·서병수·고석구·김석익·강석중·임성숙·김기수 등도 사실상은 면암의 영향력 밑에 있었던 인물들이다.

이응호는 노사 기정진의 문인인 고성겸의 제자이기도 했지만 면암의 영향을 가학으로 승계하고 있었다. 그런가하면 강철호는 면암과 직접 왕래 종유했던 사람이며 김병로는 이기온의 제자로서 모두 면암의 영향이 컸던 제주문사들이다. 그런가하면 김좌겸은 추사 김정희의 종유자였다. 이로써 보건대 집의계 결성 역시 화서학과와 노사학과와의 전통 아래서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역의 3·1운동은 조천리의 김시우의 소기를 거사일로 하여 발생하였다. 김시우는 조천지역의 대표적인 유림이었는데, 그는 최익현의 유일한 제주지역 제자인 김희정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따라서 김시우의 사상적 위상은 최익현의 척사계열이라 할 수 있다.⁷⁾

5) 김동전, 『1909년 제주의병의 실상』, 『성주』 6, 제주고서총문회, 참조.

6) 집의 결성 취지문은 다음과 같다. 「무릇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천지를 공경하고 神明을 숭배하며 忠君愛國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떳떳한 길이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遺命이거늘, 슬프다. 우리 태조께서 조선을 건국하신지 3백여 년이 흘러오는 중엽에는 왜국과 청국의 침입으로 고난을 받아왔다. 이제 고종 광무에 이르러서는 守古黨, 開化黨의 분쟁과 간신 모리배의 집권으로 말미암아 국력이 衰盡했다. 倭寇는 그 시기를 타서 광무 9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제 合邦의 凶計입을 알게 되고 長成의 畜宇萬의 義舉를 일으킨 때를 맞추어 동지 약간인과 더불어 의논하고 集義契를 결성하는 바이다.」

2) 운양 김윤식의 제주 유배와 교류

한말에 이르러 제주유림층의 일부는 보수적인 면을 일신하고 개화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계층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그 촉매적인 역할을 한 것이 개화파 김윤식이었다.

김윤식은 1897년부터 1901년 6월까지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제주지역의 개화지식인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김윤식은 1898년 4월 22일 『橘園』詩會를 구성하였는데, 시회의 회원으로는 제주에 유배되어 있던 이승오·서주보·정병조·한선희·이용호·장운선·김사찬·김경하·이범주 등과 제주지역 지식인 김응전·김응빈·홍종시·송두옥·김응해·김희주·김희정·김윤병·장규열·김희두·김창호·김병하·이공식·최창순·성준호·채정진·장용건 등이었다.

특히 김응빈은 자신의 집을 김윤식의 적소로 배려하기도 하였다. 친구문화의 갈등 속에서 세태의 변화를 관조하며 고민하던 제주 유림들에게 김윤식은 정신적 지주를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굴원시회는 제주 지역의 한문학 발달과 서로의 문화교류에 크게 이바지 하였고, 개화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제주 유림들이 거의 매일 김윤식의 적소를 방문하였다. 김윤식은 1907년 진도에서 유배가 풀려 한양으로 간 후에도 제주지식인들을 자주 초청하여 담론을 나눔으로써 조국의 국운을 한탄하며 비분강개하기도 하였다.⁸⁾ 따라서 제주 지식인들은 김윤식을 매개로 하여 외부세계인 중앙과의 소통이 가능하였다.

본래 『橘園』詩會는 김윤식이 제주에 유배되어 있던 이승오·정병조·서주보·김경하·이태황·이용호 등이 참여하는 유배인들의 모임에서 시작하였다. 그후 제주지방의 문인들이 참여로 활성화되었고, 무려 204회나 시회가 이루어졌는데, 우수한 작품을 모아 『橘園雅集』이라는 시집을 만들기도 하였다.

7) 김동진, 『제주인의 3·1운동과 그 영향』, 『탐라문화』 1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참조

8) 강재연, 『제주도 유배기의 김윤식』, 『탐라문화』 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8.

1901년 제주항쟁(소위 이재수난)으로 유배인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배되면서 사회 활동도 중단되었다.⁹⁾

운양 김윤식과 조천김씨 이동과 문중과의 교류는 매우 빈번하였다. 특히, 김윤식은 제주판관을 역임한 남강 김응빈과의 교류가 빈번하였다. 그것은 제주 성안 校洞에 있는 남강 김응빈 집을 김윤식과 이승오가 配所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김윤식은 남강에 대해 제주판관으로 행적이 많으며, 시무에 밝고 재물을 공익에 이용할 뿐만 아니라, 아들·조카·친척 모두가 뛰어나서 제주사람들이 우러러 본다고 호평하고 있다.¹⁰⁾ 『속음청사』에서 김윤식과 조천김씨 이동과 문중 인사들과의 교류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¹¹⁾

① 광무 2년(1898년) : 남강 김응빈의 종제 김응배가 김윤식을 방문 인사(1898. 2. 1), 남강이 김윤식 방문(2. 2), 궐은 김응전이 김윤식 방문(2. 12), 김윤식과 이승오가 김응빈 집으로 이사(2. 22), 방설철의 난으로 김윤식이 조천리의 김응전 집으로 피신하여 방성질을 토벌하기 위해 창의소를 조천리에 설치하고 김응빈을 의병장으로 결정함(3. 5), 방성질이 조천리를 공격하자 김응빈 등은 모병 1천명으로 방어하다가 김녕으로 피신(3. 6), 조천리 김응빈과 김응배 집이 난민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김응전과 김문주 덕은 민심을 얻어서 아무런 피해가 없었음(3. 13), 김윤식이 피신처 종달리에서 조천 김응전 집으로 귀환(3. 17), 김윤식이 김응전의 형제들과 연북정에서 시회를 가짐(3. 18), 김응빈 집에서 김윤식 등이 시회를 가짐(4. 22), 남강이 용두암에서 김윤식 등과 연회(6. 28), 남강과 유배객들이 삼성혈 등 답사(7. 10), 삼천서당 답사(7. 18), 궐은 김응전 집에서 ‘궐원’ 제13차 모임(8. 1), 남강 김응빈 집에서 궐원 제18차 모임, 장용견이 신입회원으로 참석(12. 11).

9) 1901년 조정에서는 顯益號라는 선박을 제주에 보내서 유배인들은 전라도 다른 섬으로 이배시킨 것이다. 즉, 김윤식은 지도로, 정병조는 위도로, 김사찬은 임자도로, 한선회는 추자도로, 이용호와 홍구, 이범주는 신지도로, 서주보는 여도로, 김경하는 녹도로, 이태황은 사도로, 장윤선은 금갑도로 각각 이배시켰다.

10) 『속음청사』 권8, 광무 2년(1898), 양력 1월 12일(음력 12월 20일).

11) 일자는 모두 양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② 1899년 : 김윤식이 조천 곁은 김응전 집 방문(1899. 3. 5), 김윤식의 제주 소식 김씨가 아들을 순산하자 김응빈과 홍종시가 축하해 줌(7. 26).

③ 1900년 : 곁은 김응전과 김윤식 등 10여 명이 남수구에서 시회(1900. 4. 27), 김응배가 서울에서 가지고 온 김윤식의 종형 편지와 6월 22자 황성신문을 김윤식에게 전달해 줌(7. 2), 김윤식과 김응빈, 홍종시 등이 산저포에서 유흥을 즐김(7. 26), 유배인 삼은 이승오 사망하자 김윤식, 김응빈, 송두옥 등이 호상, 상주는 현지처 順紅(9. 5), 김응빈이 밤에 술을 차려 김윤식 등 여러 유배인 초청(11. 23), 김응전이 집으로 김윤식 등 13명을 초청해서 賦詩 제2회 모임 개최(11. 29), 김응빈 생일, 부시 제7회 모임 가짐(12. 13), 김응배가 서울에서 제주로 돌아오다(12. 22). 김윤식이 겨울에 집을 이웃으로 옮김.

④ 1901년 : 김응전과 김윤식, 홍종시 등 13명이 밤에 술 자리 마련(1901. 2. 15), 김윤식에게 곁은 김응전과 남강 김응빈이 세배(2. 19, 음력 1. 1), 김윤식의 집에 김응배와 남강의 아들 김문희가 방문(3. 13), 김윤식은 김응전의 아들 정의현감 김문주가 상경하는 편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냄(3. 13), 김윤식이 상경하는 김응배를 통해 네 번째 편지 보냄(4. 8), 김윤식은 상경했다가 내려온 김문주를 통해 서울 본가에서 보낸 편지를 받음(4. 18), 김윤식이 아침에 일어나 김응빈, 송두옥, 홍종시 등이 민란으로 피신한 소식을 들음(5. 19), 김응빈이 민란을 피해 별도로 도착하여 민란으로 도피해 있는 제주군수 김창수를 면전에서 꾸짖음(5. 21), 김응빈이 김윤식에게 편지를 보내 조천리로 피신하도록 알림(5. 24), 김윤식이 밤에 서성 밖에 집결한 민당들이 천주교도들에게 쌀을 보낸 송두옥, 김응빈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외치는 소리를 들음(5. 27), 조천으로 피신했던 김응빈과 홍종시가 제주성으로 돌아옴(5. 31), 김응배가 서울에서 김윤식 본가에서 보낸 편지를 가지고 옴(6. 2), 김응전이 김윤식 방문(6. 13), 민란으로 배소를 옮기면서 김윤식은 김응빈, 홍재진 등과 작별(7. 10).

제주에 유배되었던 雲養 金允植은 조천김씨 이동과 문중 집안을 일컬어 ‘문장을 잘하고 용모가 남달랐으며 서울에 드나들며 사대부들과 많이 교류를

하였고, 조천리 30여 호 기와집에 모여 살면서 守畝으로 현존해 있는 사람이 8명이나 되므로 복이 있는 집안이라 극찬한 바가 있다.¹²⁾ 그가 제주에 유배되었을 당시에 이동과 문중 인사와 교류했던 인물은 제주판관을 역임한 남강 김응빈을 비롯해 해미현감을 지낸 곁은 김응전, 제주부 주사 김응배, 정의현감 김문주 등이다. 김응배와 김문주는 서울을 드나드는 길에 김윤식과 서울 김윤식 본가 사이의 서신을 서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 친분이 깊었다. 1898년 방설칠 난 당시에 김윤식은 남강 김응빈과 반군을 결성하여 토벌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김응빈은 김응전과 달리 난민들의 환심을 사지 못해 난민들로부터 처벌의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¹³⁾

한편, 박영효는 1907년부터 1년간 제주에 유배형에 처해졌다. 그는 형기가 끝나도 그대로 제주에 머물러 있어 3년이 지난 1910년 6월에야 출륙하였다. 박영효의 제주 유배는 제주의 근대교육은 물론 계몽운동에 선도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영효는 특히 제주에서 농촌계몽적인 운동을 전개하면서, 김응전·김응빈·송두옥·홍종시·채구석·김희두·최원순·장용건·안병택 등과 학문적인 질의와 토의를 나누면서 계몽운동 및 신학문을 전해 주었다.

한편, 1910년을 전후한 시기, 제주사회의 새로운 변화중의 하나는 신학문의 도입이나 새로운 종교의 유입을 통한 신문화의 전파로 새로운 계층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후일 제주지역에서 민족해방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세력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류의 교육기관으로 1905년의 개성학당(대정), 1907년의 의명학교(성읍), 1908년의 한일학교(대정) 등이 개설되었다. 근대교육기관으로는 1907년 1월 초등교육기관인 제주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907년 7월 중등교육기관인 사립의신학교 개교를 가져 왔고, 1910년 5월 2일에는 이를 모체로 하여 제주공립농림학교가 개교되었다. 1909년 정의공립보통학교, 1911년 대정공

12) 김윤식, 『속음청사』, 광무 2년 3월 18일.

13) 조성윤, 『1898년 제주도 민란의 구조와 성격-남학당의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전통사회의 구조와 변동』, 문학과 지성사, 1986.

립보통학교, 1912년 제주공립심상학교에 고등소학교의 병설이 인가되었으며, 1917년에는 서귀공립심상소학교의 개교가 이루어 졌다.

한편, 종교계에서는 1910년 10월 신성여학교가 초등과정 4년, 중등과정 1년으로 개설되었다. 개신교계에서는 문맹퇴치운동 차원에서 1910년 城內教會에 다 6년 과정의 영흥야간학교를 개설하기에 이른다. 조천지역의 독서회관 예수회에서 운영한 것인데, 이곳에서 교편을 잡았던 지역인사로는 김문준·김명식·김형식·김년배·한우병·김시범·이일빈·김순탁 등이었다. 그리고 제주지역 곳곳에는 각 종교의 포교소가 신설되는데, 조천지역에는 1915년 12월 24일에 朝天館教會가 들어섰고, 이를 중심으로 조천리 출신 지식인들이 활동하기도 하였다.

3. ‘조천김씨’ 문중의 외부세계 소통과 활동

1) 조천김씨 이동과 문중 사람들의 현실인식과 활동

조천은 제주와 육지를 연결시켜주는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다. 제주로 부임하거나 떠나는 목민관들이 주로 집결하였던 곳이고, 학문에 뛰어난 유배인들이 왕래하는 등 제주에서는 가장 먼저 중앙의 소식이나 새로운 사상을 접할 수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소위 ‘조천김씨’로 불리는 김해김씨 삼현파의 조천리 이동과 문중은 조천리의 중심 동네인 梨洞에 세거한 金福模의 후손들을 말한다. 이 집안이 주로 제주의 관문인 조천리에 집단 거주하였기 때문에 소위 ‘조천김씨’라 부르기도 한다. ‘朝天金氏’로 불리는 이동과 문중은 김해김씨 三賢派에 해당한다. 삼현파는 고려 충정왕 때에 版圖判書를 역임한 金管을 중시조로 받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입도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지파로 형성되고 있다. 즉, 김복모·김근한·김기손을 각기 입도조로 삼고 있다. 이 중에서 이동과 문중은 중조 김관의 10세손이 되는 金福模를 입도조로 삼고 있다. 그가 제주에 입도하게

된 배경은 정확하지 않으나 시기는 16세기 중반경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⁴⁾

이동과 문중의 입도조 金福模의 7세손 金建南(선조 41년, 1608~숙종 21년, 1695)은 많은 부를 축적하였는데, 평소 부자가 되어서 인심을 잃으면 守錢奴라 할 정도로 남을 돕기를 좋아하여 흉년으로 기근이 들때마다 조·보리 수백 석을 사심없이 내놓아 백성들을 진휼하였다. 이에 제주목사가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니 임금에 김건남에게 ‘진흥당상 가선대부’를 제수했다.¹⁵⁾ 김건남의 현손 김광택(영조 22, 1746~헌종 4년, 1838)은 키가 6척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학문을 좋아하였고, 노란 머리털이 이마에 나부껴 仙風道骨의 풍치가 있어서 주위 사람들이 그를 매우 흠모하였다.¹⁶⁾ 이동과 김씨라 부르게 된 연유도 김광택이 조천 梨洞에 거주한 데서 비롯된다. 김광택은 부인 인동장씨 사이에서 致文을 얻었고, 소실을 통해서서 致潤을 얻었다. 소실에서 낳은 치윤은 6남, 즉 행임·경임·기임·명임·규임·상임을 두었는데, 둘째 경임만 제외하고 다섯 아들이 모두 무과에 급제하는 쾌거를 이루어 가문이 제주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金幸任(1806~1858)은 무과에 급제하여 제주 명월진의 명월만호, 첨지중추 부사를 역임하였다. 그는 응성과 응민 두 아들을 두었는데, 응성의 증손자 김충환은 조천만세운동을 주도하였으며, 김유환은 제주의 혁우동맹과 조천소비조합 운동을 주도하였다. 응민의 손자 김시은은 1919년 제주지역의 3·1운동인 조천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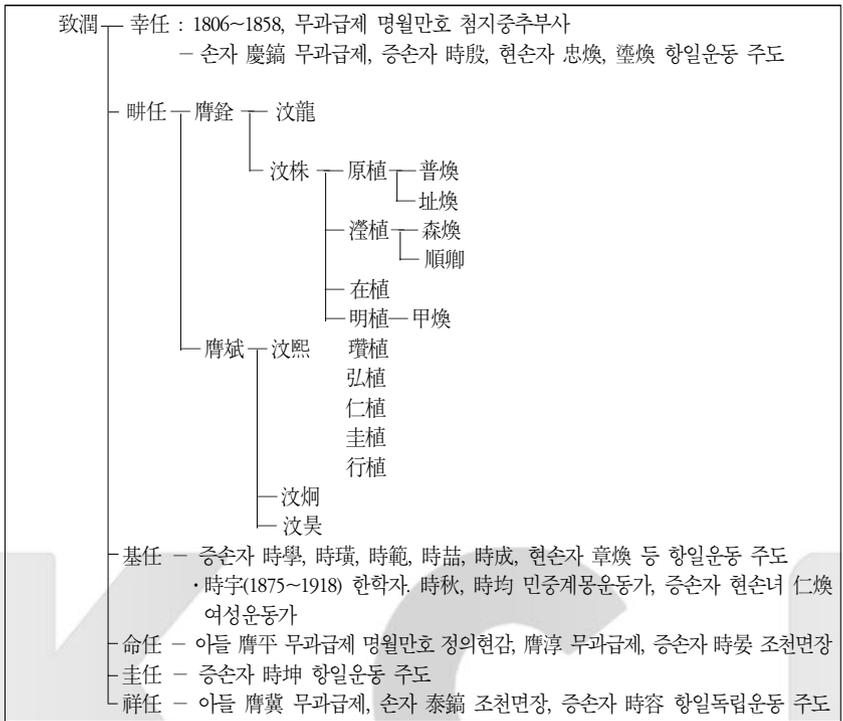
金畊任(1811~1861)은 무과에 급제하지 못하였으나 호조참판에 贈職되었다. 그는 응전과 응빈 두 아들을 두었는데, 김응전의 가계는 주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면서 해방을 전후해 가계가 몰락한 반면에 김응빈 가계는 일본의 문화 정치에 동화해 나가면서 제주지역에서 일정한 헤게모니를 장악하였다.

끝은 김응전은 당대의 최고의 문사이며 명망가로 충남 해미현감을 지냈다. 만취 김시우가 작성한 김응전의 행장에 의하면, 김응전은 나이 5세에 정의

14) 제주도, 『제주선현지』, 1988, 159~160쪽.

15) 답수계, 『증보탐라지』 인물조, 1953.

16) 위의 책, 재유조.



<도 1> 김해김씨 삼현파 소위 조천김씨 이동파 치윤계의 계보¹⁷⁾

현에 귀양 중인 李承憲에게서 수학하였으며, 그후 문과에 계속 낙방하자, 1877년 무과에 응시하여 급제하고 1878년 명월진 만호, 이어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을 역임하였다. 고종 18년(1881) 봄에 상경하였다가 대원군과 민태호를 만나 담론을 나누게 되는 기회를 만났다. 그러한 연유로 그는 민태호의 추천으로 충청도 해미현감 겸 홍주진관 병마절제도우 좌영토평사로 임명되었다. 1882년 6월에 임오군란으로 조정의 기강이 헤이해지자 관직을 사직하고 귀향하여 생활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로 자호를 農隱이라 하고 고향에서 은둔하였다. 1915년 5월 일본인 도사 이마무라도모가 임용되자 경악을 금

17) 김찬흡, 『정의현감 김문주 가문에 대한 관견』, 『농은문집』, 복계주문화원, 2004, 참조

치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더니 6월 17일 향년 83세로 사망하였다.

김응전은 문룡과 문주 두 아들을 두었다. 김문룡은 성균관 진사 시험에 합격하여 시문이 뛰어났으나 단명하였다. 김문룡의 큰 아들 두식도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시 초천면장을 역임했으나 단명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조카 金閔煥은 항일독립 운동가였다. 김문주(1859~1935)는 정의현감을 역임하였으며, 당시 제주의 부호로 대정현감을 역임한 송두옥¹⁸⁾의 동생을 부인으로 맞이하여 슬하에 원식, 형식, 재식, 명식 4남을 두었다. 그는 1891년 2월 정의현에서 이완평·현계환이 지방관의 수탈에 항거하여 난을 일으켰을 때에 이를 진압하고 주모자 이완평 등 4명은 참수하고, 현계환 등 8명은 유배시켰다. 그는 의병, 항일에 직접 투신하기보다는 일본에 대적하는 것이 마치 창과 활로 충과 대포를 대하는 것과 같으므로 학문을 닦거나 후학을 양성하여 후일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김문주의 큰 아들 김원식(1876~1924)은 제주군 주사를 역임하다가 목포로 이거하여서 생활하였으나 50세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그의 둘째 아들 김지환은 항일운동가로 활동하였다. 둘째 아들 혁암 김형식(1886~1929)은 송산 김명식의 친형으로 어렸을 때는 아우 김명식과 함께 韓錫俸이 건립한 의흥학교에서 근대교육을 배워 새로운 문명사회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는 『조선문예』¹⁹⁾에 많은 漢詩를 통해 일제의 국권수탈에 대한 울분을 달렸다. 이를 통해 1919년 제주지역에서 일어났던 초천만세운동 이전에 그가 간직했던 현실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 3·1운동 이후에 그는 ‘避礙’란 아호를 ‘革菴’이라 고쳤는데, 그 속에는 ‘암울한 세상을 바꾸고자’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충북과 황해도 신의주까지 한학 유학을 떠나 체험하면서 외부세계와 소통하였다.²⁰⁾

18) 宋斗玉은 대정현감을 역임한 이유로 해서 ‘宋大靜’이라 불리었다. 김윤식은 그를 ‘집안이 부유하나 마음이 너그럽고 후하여 남의 원망을 사지 않으며 민심을 얻고 있다’고 평하였다(『속음청사』 권8, 광무 2년 1월 18일).

19) 『조선문예』는 崔永年을 발행인으로 조선문예사에서 1917년 4월 창간되었으며, 1918년 10월 폐간되었다. 한시문(漢詩文)을 주로 게재하였고, 필진은 주로 한학자로서 鄭萬年·呂圭亨·金圭鎭·權相老 등이 활동하였다.

20) 김형식 저, 오문복 역, 『혁암산고』, 복재주문화원, 2004.

1914년 12월에는 조천면장으로 임명되어 2년 여간 재직하면서 한문학에 몰두하였다. 그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딸을 인천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로 신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921년 김경중, 홍순녕과 함께 인천 신인경 집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제주인들의 모임인 濟友會 창립을 주도했고, 그가 사망하자 그의 친구 심재 김석익은 ‘悼革菴金澧植’이란 시로 그를 애도했다.

김문주의 셋째 아들 김재식은 독립군자금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등 항일운동을 주도하였으며, 막내 아들 김명식(1891~1943)은 제주가 낳은 최고의 사상가로 사회주의 운동에 전념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초로 사회주의 재판으로 옥고를 치루었다. 그의 아들 김갑환도 노동운동을 통해 항일운동을 주도하였다.

김응빈(1846~1928)은 고종 28년(1891)에 무과에 급제하여 동년 4월 명월만호를 거쳐, 동년 8월에 제주판관을 역임하였다. 제주판관을 역임한 그는 김윤식이 제주에 유배왔을 때 제주인으로서 가장 먼저 친교를 맺었다. 김응빈의 호탕한 성품과 뛰어난 문장은 김윤식과의 관계를 더욱 결속시켜 나갈 수 있었다. 그는 굴원 시회를 김윤식과 함께 주도하였다. 송두옥·홍종시와도 주로 교류하였는데, 송두옥과는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할 정도였다. 즉, 송두옥이 제주 성안의 중심지인 지금의 중앙로 일대 한일은행 자리에 웅장한 기와집을 짓고 유생들을 모아 자주 詩會를 즐겼는데, 이에 질세라 김응빈은 그 옆에 초가집을 사서 허물고는 웅장한 기와집을 지었다.²¹⁾ 김응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진다. 즉, 김응빈은 본래 조천 출신으로 한양을 드나들며 미역 등 해산물을 거래하던 상인이었다. 남대문 일대의 주점에서 이하응의 건달패와 난투극이 벌어졌는데, 이하응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이러한 연유로 김응빈은 이하응의 집에 초대되어 친교를 맺게 되었으며, 그 후 이들은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다.

김응빈은 나라가 일본에 빼앗기고 1910년 11월 3일 노인을 위한다는 뜻으로 조선총독부에서 주는 日王의 은사금 15원을 받았다. 그의 아들 김문희는

21) 이 자리는 일제시대에 제주의 대표적인 기업가인 박종실이 매입해서 박종실 상점을 열었으며, 지금은 외환은행 제주지점이 자리하고 있다.

일제시대에 제주읍장과 濟州島司를 역임했다. 그런지 그의 후손 중에는 항일 운동을 전개한 인물이 한 명도 없다. 그는 말년에 瀛州吟社를 조직하여 제주 도내의 詩人墨客을 모아 詩律로 취미를 삼다가 사망하였다.

金基任(1813~1873)은 무과급제자이며, 7명의 아들을 두었다. 증손자 時學, 時璜, 時範, 時喆, 時成, 현손자 章煥 등이 항일운동을 주도하였다. 손자 時秋, 時均은 민중계몽운동가, 현손녀 仁煥은 여성운동가로 활동하였다. 한학자 만취 김시우는 면암 최익현에서 해은 김희정으로 이어지는 충군애국의 사상을 계승한 대표적인 한학자이다. 1915년 김응전이 사망하자 喪時에는 참석하지 못하는데, 그는 당시 중국 북경에서 문물을 체험하고 있었다. 즉, 김시우는 북학을 연구하기 위해 경기도 포천으로 龍溪 柳선생을 찾아가 경전의 깊은 뜻을 터득하기도 했으며 고국을 두루 답사하고 서울에서 천하의 문사, 호걸들과 교류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공자와 맹자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귀향하였다.

그러나 김시우는 유람 중에 모진 병에 걸려 1918년 음력 2월 20일에 향년 43세로 사망하였다. 만취 김시우의 행장은 김응전의 손자이며 김문주의 둘째 아들인 김형식이 작성하였다. 조천만세운동은 바로 그의 소기를 맞아 조천김 씨들이 중심이 되어 발생한 것이었다. 만취의 유고는 김형식과 李昌廈가 모아 수록한 기록이 있으나, 오늘날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의 유고에는 경성 체험이나 해외 체류 경험 등을 통해 얻은 다양한 내용과 교류 인사 등 외부와의 소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 그가 일찍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외부세계와의 소통이 제주지역 사회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金命任(1816~1869)은 무과급제 후에 명월만호 첨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3남을 두었는데, 그의 큰 아들 김응평은 정의현감을 역임하였다. 이 가계에서도 김응빈 가계와 마찬가지로 항일운동가는 찾아지지 않는다.

金圭任(1825~1908)은 무과급제하고 명월만호, 대정현감을 역임하였다. 증손자 時坤은 조천만세 항일운동을 주도하였다. 金祥任(1837~1882)은 무과급제 후에 명월만호 첨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증손자 金時容이 항일독립운동가로 활동하였다.

조천김씨 이동과 문중은 한말에 제주에 유배왔던 운양 김윤식을 비롯해 박영효 외에 이승오, 궁내부참사였던 서주보, 시종관을 지낸 정병조, 한성부관찰사를 역임한 김경하, 친위대부위를 역임한 이태황 등과도 밀접한 교류를 이루었다. 그 외에 제주지역에 한문과 사상을 전파한 대종교 창시자 나인영, 성균관 박사 정현구, 監役 황병유, 유영석 등과도 ‘굴원’ 시회를 통해 교류하였다. 이승오는 1901년 5월에 제주 유배 중에 사망하였고, 나인영은 스승 김윤식을 따라 왔다가 제주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1907년 3월에는 을사오적의 한 사람인 권중현을 저격하는 등 민족의 정기를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하였다.

한편, 제주지역에서의 3·1운동은 이동과 문중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운동은 제주의 관문인 조천지역을 중심으로 1919년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전개되었다. 시위운동의 발단은 당시 휘문고보 4학년인 김장환이 독립선언서를 숨기고 귀향하면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이미 김시범, 김시은 등이 전국 각지에서 조선 독립을 선언하는 시위운동이 활발하고 있음을 듣고, 조선 독립의 시위운동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들은 1873년(고종 10)에 제주에 유배되어온 최익현의 척사론의 영향을 받은 전통적인 유림세력이었다. 즉 최익현의 문인이었으며, 한말 제주도에서 道學의 제일인자였던 김희정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김시우와 서로 형제지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김시학 역시 형제지간이었다. 이들은 김응빈, 김응전 등과 조천지역에서 전통적인 양반세력으로 불리는 소위 조천김씨의 핵심적인 인물들이다.

어떻든 조천지역에서 이와 같은 항일운동이 고조되어 나가고 있던 상황에 도화선을 제공한 이는 다름 아닌 김시학의 아들이며 김시범, 김시은의 조카인 김장환이었다. 김장환은 경성에서 3·1만세 시위에 가담하여 활동을 전개하다 학교가 휴교 조치되고, 3월 5일 이후 시위자 색출작업이 강화되자 3월 12일 제주 귀향을 결심하였다. 그래서 3월 15일 목포에 도착하였고, 그 다음날인 3월 16일에 조천에 도착하였다. 이때 김장환은 독립선언서를 숨기고 들어 왔는데, 인사차 숙부 김시범을 찾아간 그는 서울의 시위상황을 소상히 말하였다. 김시범·김시은은 전국 각지에서 3·1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여러 선박이라든가 인편에

익히 듣고 있던 터라 제주지역에서의 시위운동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다.²²⁾

2) 송산 김명식의 외부세계 소통과 활동

송산 김명식(1891~1943)은 1891년 음력 9월 26일 조천리에서 정의현감을 역임한 김문주와 송권숙의 사이에서 4남 2녀 가운데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 송권숙은 대정현감을 역임한 제주 최고의 부호였던 송두옥의 딸이다.

김명식은 지금의 구좌읍 김녕리 김희서와 결혼하였고, 고향 조천리에서 의흥학교를 다닌 뒤 1908년 서울에 있는 한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우리의 국운이 쇠락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민족의식을 더욱 강하게 가졌다. 그의 나이 24살 되던 해인 1915년 부인 김씨와의 사이에 큰딸 순애를 낳은 뒤 일본 유학길에 올라 도쿄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에 입학했다. 이 시기에 김명식의 가문은 선친이 정의현감을 역임하기는 했지만, 점차 가세가 기울어져 가고 있어서 유학비용을 감당하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는 일본 유학시절에 신문배달과 막노동을 통해 부족한 학비를 조달하여야 했다. 그는 와세다대학 정치경제과에서 인촌 김성수를 만나게 된다. 김명식이 『동아일보』와 인연을 맺었던 것은 이러한 인연 때문이었다. 또한 와세다대학 고등예과에 입학한 춘원 이광수와도 서로 교분을 쌓고, 학우회 기관지인 『학지광』 등에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특히, 김명식은 재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에서 해공 신익회를 만나면서 학우회의 간사부장을 맡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민족의식을 불어넣는 데 노력하였다.

한편, 김명식은 일본 유학시절인 1916년 김철수·장덕수·정노식 등과 함께 ‘신아동맹단’의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신아동맹단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여 상호평등의 새로운 아시아를 건설한다는 목표로 중국·대만 유학생들과 함께 결성된 국제적 비밀결사였다. 한국인 8명을 포함하여 40여 명의 유학생들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유학시절의 활동으로 그는 후에 상해파 공산당의 핵

22) 김동진, 『제주인의 3·1운동과 그 영향』, 『탐라문화』 1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참조.

심세력으로 활동하였다.

1918년 7월 7일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김명식은 고향 조천리로 내려오지 않고, 경기도 수원군 수원면 신흥리 44번지로 주소를 옮겨 민족해방운동을 위한 활동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1919년 1월에는 오인성(경기도 경성부 효자동)과 다시 혼인하였는데, 오인성은 동년 12월에 딸 수원을 낳은 뒤 1920년 1월에 사망하고 말았다. 이 시기 김명식은 대한독립단원인 고순흙, 장덕수 등과 상해 임시정부헌법 기초를 위한 국내 기초안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3·1운동 이후 조선의 청년, 학생, 지식인들은 민족해방운동의 사상적 이념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사상에 심취해 있던 김명식은 신생활사 필화사건으로 구속되어 경성지법에서 심리를 받아야 했다. 1922년 12월 26일 경성지법 제7호 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혼동해서 심리하는 검사를 향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마르크스의 사상에 공감하여 연구하고 찬성하는 사회주의자’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그는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사상을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김명식은 1920년 6월 신아동맹단 한국지부가 서울에서 비밀리에 제5차 대회를 개최하여 사회혁명당으로 이름을 바꾸는 등 조직을 개편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사회혁명당은 사회주의단체로 ‘계급타파와 사유제도 타파, 무산계급의 전제정치’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사회혁명당은 1921년 5월 상해에서 열린 고려공산당 창립대회에 8명의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조선 사회주의운동을 지도할 고려공산당의 성립을 선포했다. 김명식은 고려공산당 중앙총감부 산하의 선전업무를 담당하였고, 국내부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와 같이 그는 사회혁명당, 고려공산당에 깊숙이 개입하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청년운동단체를 전국적 차원의 단일조직으로 규합하기 위해 1920년 6월 28일 장덕수·박일병 등에 의해 조선청년연합 기성회를 발기하면서 22명의 집행위원을 선출하였는데, 김명식은 지방부 소속으로 참여하였다. 그 후 1920년 12월 1일에 창립된 조선청년연합회를 주도하였다. 김명식은 기관지 『我聲』을 통해 유물사관과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등의 사상을 국내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한편, 김명식은 1920년 4월 11일 결성된 조선 최초의 노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에도 관여하였다. 즉, 김명식의 영향으로 제주 출신의 2년 후배인 고순흠²³⁾을 비롯해서 양제박·홍순녕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김명식은 평의원으로 참여하였다. 조선노동공제회에서 개최한 각종 강연회와 기관지 『공제』를 통해 서구의 노동운동사 및 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국내에 소개하였다. 1921년 제3회 정기총회에서 김명식이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고순흠은 간사로 선출되었다. 고순흠은 제주해녀조합 설립운동에도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주흥학회 등 제주와 관련된 각종 강연회에 연사로 참여하여 제주출신들에게 당시의 국내외정세와 우리의 前途 등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고순흠은 1928년 말 제주항해조합과 기업동맹 기선부를 설립하여 일본기선회사의 횡포에 대처하였으나 좌절되었다. 양제박은 1920년 제주물산주식회사 전무로 활동하던 중에 조선노동공제회를 고순흠과 사실상 결성하였고, 그후 생활근거지를 인천으로 옮겨 불교협회와 신정회를 통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 4월 1일 『동아일보』가 창간되자, 김명식은 논설기자로 들어가 사회주의 사상이면서 언론인으로 활동하였다. 동아일보 발행인은 일본 유학시절 같은 학과였던 김성수였고, 사장 박영효, 편집감독 유근, 양기탁, 주간 장덕수, 편집국장 이상협이었다.

김명식은 동아일보를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대중들에게 많이 전파하였다. 1920년 4월 1일 창간호에 사설 「大勢와 改造」와 축시 「비는 노래」, 「새봄」 2편을 게재하였다. 「大勢와 改造」에서 그는 인류의 평화를 교란시킨 1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열강의 침략주의를 강렬히 비판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각

23) 죽암 고순흠은 제주 조천 출신으로 무정부주의의 항일운동가로 유명하다. 성균관 교수를 역임한 고성겸의 아들로 제주에서 사립의신학교를 거쳐 1912년 3월 제주농업학교를 졸업하였는데, 목우 김문준과 동기생이다. 그는 1914년 3월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한 후에 신민회 계열의 비밀단체인 대동청년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상해를 왕래하면서 독립운동 포고문과 격문을 국내에 배포하였다.

그 후 그는 1924년 3월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무산자사회연맹’, ‘조선인 여공 보호연맹’(당시 여공의 대부분은 제주 출신)을 결성하여 무정부주의 사상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는 서체로도 유명하여 김문준의 묘표, 매강 김운배의 묘비, 김시성의 묘비, 김시숙의 묘비 등 주로 제주 출신 항일운동가들의 비문을 작성하였다.

국의 민족해방운동의 세계적 대세 및 개조의 당위성을 피력하였다.

『조선 父老에게 고함』(1920. 5. 4~5. 9. 6회 연재)을 통해 낡은 인습을 타파하는데 부로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청년이 적극 앞장설 것을 주장하였다.

『니콜라이 레닌은 어떤 사람인가』(1921. 6. 3~8. 31. 61회 연재)에서는 최초로 레닌 일대기를 국내에 소개하면서 레닌과 러시아혁명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 외에도 그는 제사문제, 기독교문제, 국제정치 등 다양한 방면의 글을 통해 낡은 인습의 타파는 물론 조선 국민들이 세계사회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보편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웅변가적 기질을 가진 그는 각종 강연회를 통해 그가 가지고 있던 사상을 전파해 나갔다. 『世潮의 進向』(1921. 10. 9, 갑동회), 『자유사상의 입진』(1921. 12. 1, 조선청년연합회 1주년 기념식), 『恒産의 保障』(1922. 4. 23. 인쇄직공친목회) 등의 강연은 대표적인 것이다.

김명식은 1922년 1월에 박희도, 이승준 등에게 출판사의 설립을 권유하여 신생활사를 창립하게 하고, 이사 겸 주필에 취임하여 ‘개조와 혁신’을 잡지사의 목표로 하여 월간지 『新生活』을 발행하였다. 집필진은 김명식을 비롯해 신일용·이성태·신백우·정백 등 혁신적인 지식인들이었다. 이성태²⁴⁾는 제주 조천 출신으로 『생활의 불안』, 『크로포트킨 학설 연구』를 게재하였고, 1923년 3월에는 동아일보에 물산장려운동을 반대하는 『중산계급의 이기적 운동』을 발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22년 11월 11일 발간한 『러시아혁명5주년 기념특집』을 다

24) 제주 조천 출신으로 1915년 3월 제주공립학교, 1917년 3월 제주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해서 휘문고등보통학교에서 2년간 수학한 후 1919년 4월에 경성청년학관에 들어가 9월까지 다녔다. 1920년 10월 상해로 가서 독립신문 기자로 활동하다가 1921년 3월에 귀국하여 잠시 중앙학교에 근무하다가 신생활사에 참여하였다. 신생활사 활동 외에 그는 1923년 8월에 민중사 결성, 동년 9월에 조선노동대회 준비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1924년 6월에는 정재달(충북 진천) 사건에 연루되어 일시 검거되었고, 128년 2월 조선공산당 제3차 대회에서 조직부를 담당,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당 기관지 『朝鮮之光』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해 상해에 가서 제3차 조선공산당 대회 상황을 코민테른에 보고하고 코민테른의 『국제정세에 관한 보고』를 가지고 입국하였다. 결국 1928년 6월 종로경찰서에 검거되어 1929년 2월 2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1934년 11월 19일 만기로 출옥하였다.

룬 제11호와 『민족운동과 무산계급의 전술』을 다룬 제12호를 문제 삼아 결국, 1923년 1월 8일자로 『신생활』을 폐간 조치를 내렸다. 김명식은 신생활사 필화사건 재판 과정에서 혁명의 당위성을 인류사회는 무산계급의 혁명으로 진정한 자유 평등을 성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⁵⁾

조선인 언론계 송진우(동아일보), 염상섭(동명), 오상은(신천지), 이재현(개벽), 최국현(조선일보) 등과 법조인 김찬영, 박승빈, 최진, 허헌 등이 모여 언론옹호 결의문에 서명하고 조선총독부의 언론탄압을 규탄하였다. 그러나 1923년 1월 16일자로 노무라 재판장은 사장 박희도와 이시우에게 징역 2년 6개월, 주필 김명식과 김사민에게 징역 2년, 기자 신일용, 유진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씩을 선고하였다. 이 재판은 조선 최초의 사회주의자에 대한 재판으로 주목받았다.

김명식은 수사과정에서 온갖 고문과 함흥형무소에서 노역 중에 건강이 악화되어 1923년 7월 27일에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 흥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동년 10월에는 병이 악화되어 일체의 면회를 금지하였다.²⁶⁾ 다행히 위기를 넘겼으나, 한 쪽 발에는 게다를 신고 다른 쪽 발에는 고무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다녔으며, 고막이 터져 필담으로 대화를 나누는 등 평생 동안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

병으로 인해 1925년 5월경에 제주에 내려온 그는 1927년 3월에 신간회 제주 도지부가 결성되면서 지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그 뒤 일본으로 건너가 병 치료와 함께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1930년 6월에 일본의 동지형무소에 다시 수감돼 잔여형기를 모두 마치고, 같은 해 11월 1일 출감하였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는 제주 출신 노동운동가 김문준이 발행한 『민중시보』에 사설을 게재함으로써 그의 사상을 전파하여 나갔다.

1938년에 국내에 돌아온 그는 서울에 잠시 머물다가 고향인 제주 조천리에 정착하였다. 김명식은 그 후에도 동아일보 등에 계속하여 집필활동을 전개하였다. 1940년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6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제1차대전후 세계사』란 연재를 통해 베르사이유체제, 독일의 배상금과 戰債 문제 등을 지적하

25) 김명식, 『러시아5주년 기념』, 『신생활』 제11호, 1922. 11.

26) 『동아일보』 1923년 10월 22일.

는 한편, 미국·독일·영국·프랑스·오스트리아·호주·이태리 등 세계강대국의 동향을 밀목요연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 민족의 현실문제를 전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조명하려는 그의 식견이 대단하였음을 말해 준다.²⁷⁾

김명식은 생애 말년에 지금의 제주 구좌읍 세화리 큰딸 순애씨가 살고 있는 사위집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다가 1943년 4월 53세의 나이로 ‘광복이 되기 전에는 사망신고도 하지 말고, 내 무덤에 비석도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와 언론인 유광열은 김명식을 가리켜 ‘제주에 낳은 상징적 인물’이며, ‘철저한 민족주의자’라 칭송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사상을 통한 그의 민족해방운동 활동은 그의 아들들이 월북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99년 8월에 이르러서야 사실상의 복권이 이루어졌다.²⁸⁾

김명식의 아들 김갑환(1914~?)은 일본 오사카에서 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조천보통공립학교를 졸업하고 1928년 3월 일본으로 건너가 공장의 직공으로 일하면서 노동운동에 전념하다 1933년 5월에 일본 경찰에 검거당했다. 그는 1934년 9월 15일 오사카지방법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명식은 제주지식인들에게는 조선의 뛰어난 10명의 청년 가운데 한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일본 경찰들도 길거리에서 그를 만나면 거수경례를 붙일 정도로 그의 명성은 대단하였다. 일제의 혹독한 고문과 형무소에서의 중노동 등으로 폐인이 되다시피 했던 김명식은 그의 호 만큼이나 푸른 소나무 산처럼 우뚝 서 제주지역 청년들의 정신적 지주가 된 것은 물론 국내의 사회주의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²⁹⁾

27) 『동아일보』에 연재된 『제1차대전후 세계사』의 내용은 『제주도사연구』 6, 제주도사연구회, 1997 참조.

28) 허호준, 『혁명이 김명식의 생애와 사상』, 『4·3과 역사』 제5호, 제주4·3연구소, 각, 2005.

29) 앞의 논문 참조.

4. 맺음말

근대 제주지식인들은 다른 지방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근대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함으로써 제주라는 지역적 공간과 전통의 문제를 보편적인 문제로 고양시키고, 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하였다.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중앙과의 원활한 소통에는 제약이 있었지만, 제주인들은 제주 유배인들을 통한 중앙과의 소통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

제주로 유배왔던 최익현과 김윤식은 신구문화의 갈등 속에서 세태의 변화를 관조하며 고민하던 제주 유림들에게 정신적 지주로 작용하였다. 최익현의 실천적 의와 유교적 민족주의 사상은 안달삼·이기운·김희정에게 이어졌고, 이는 다시 안병택·이응호·김석운·김시우에게 영향을 미쳤다. 김석운 등의 1909년의 제주의병, 이응호에 의해 주도된 비밀결사체인 집의계, 3·1운동과 이동과 문중, 심재 김석익과 혁암 김형식의 사상적 맥락은 모두 이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조천김씨 이동과 문중 중에 김응전과 김응빈 형제의 끊임없는 서울 왕래와 우연한 기회에 형성된 대원군과 민태호와의 관계는 서로의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근대 제주지역 개화지식인들은 제주 조천 출신으로 전남 광주에 거주하는 부해 안병택에게 수학함으로써 외부와의 소통을 일차적으로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석운, 심재 김석익, 혁암 김형식, 만취 김시우 등 대부분의 유학자의 경우가 그렇다.

김윤식과 이동과 문중의 김응빈을 중심으로 주도된 204회의 ‘굴원’ 시회는 제주지역의 한문학 발달뿐만 아니라, 제주와 중앙의 의식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었다. 당시 제주의 개화지식인들은 이 모임을 통해 결집되어 있었고, 이동과 문중은 간간히 서울을 왕래하면서 신문을 가지고 오는 등 서울의 소식을 가져왔다. 결국 중앙의 의식세계로 대표되는 제주 유배인 집단은 김윤식으로 결집되어 있었고, 지방의 의식세계를 대변하는 집단은 조천김씨 이동과 문중이었던 김응빈을 중심으로 송두옥·김희정 등이 결합되어 있었다. 이 둘의 만남의 장이 곧 ‘굴원’ 시회이며, 이는 중앙과 지방이 서로의 소통을

통한 결합의 장이었다.

조천김씨 이동과 문중 출신 가운데 송산 김명식은 일본 유학을 통해 인촌 김성수, 춘원 이광수, 해공 신익희 뿐만 아니라, 김철수, 장덕수, 정노식 등 사회주의운동가들과 교류를 통해 사회주의 운동에 심취해 나갔다. 이후 사회혁명당, 고려공산당에 가입하여 주요 간부로 활동하였고, 신생활사 필화사건, 청년운동단체인 조선청년연합회 창립 주도, 제주 출신 고순흙, 양제박, 홍순녕 등과는 조선 최초의 노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를 창립하였다. 동아일보가 창간된 후에 김명식은 동아일보 논설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대중들에게 전파하였으며, 박희도, 이승준 등의 도움으로 신생활사를 창립하여 사회주의 운동 잡지인 ‘신생활’ 발행을 통해 당시 혁신적 지식인이었던 신일용, 이성태, 신백우, 정백 등과의 교류를 통해 무산계급의 혁명을 강조하였고, 결국 조선 최초의 사회주의자에 대한 재판으로 박희도, 이시우, 김사민, 신일용, 유진희 등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김명식은 고향 조천리 외에, 서울, 일본의 동경과 오사카를 왕래하면서 당대의 사상가들과 교류하면서 레닌과 러시아혁명, 마르크스주의 등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하였고, 동아일보와 신생활 잡지를 통해 그의 사상을 대중들에게 전파시킴으로써 무산계급의 혁명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였다. 당시 국내외에서 운동의 핵심에 위치했던 제주출신 무정부주의 항일운동가였던 고순흙, 노동운동가인 김문준, 양제박, 홍순녕, 혁신적 지식인 이성태 등과 밀접한 교류를 통해 사회주의 운동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였다. 특히, 건강으로 인해 제주로 낙향하였을 경우에도 신간회 제주지부장을 맡는 등 제주지역에 사회주의 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제주지식인들은 제주라는 지역성 특히, 그 중심에는 항상 조천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는 조천이 제주 관문으로 새로운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었다는 점과 조천김씨 이동과 문중을 중심으로 조천리에는 토착양반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유학 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존재했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서울, 일본 오사카 등에 진출한 조천리 출신들의 민족해방운동가들은 고향 조천리를 매개로 제주, 서울, 일본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면

서 상호 소통을 통해 의식세계를 어느 정도 공유해 나갔다. 그만큼 제주지식인 가운데는 조천 출신들이 각 지역에서 민족해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일제시기 제주인들이 외부세계와의 소통에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는 곳이 서울보다는 일본, 즉 오사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는 제주와 대판간의 항로가 개설된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 제주인들은 오사카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통해 외부세계를 인식해 나가고 있었다. 일제시대를 살았던 제주 출신 가운데는 오사카를 한번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두 지역간에는 밀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제어]

제주, 조천, 최익현, 김윤식, 김응빈, 김명식, 지식인, 외부세계, 소통

■ 참고문헌

1. 자료

『승정원일기』

『면암집』

『속음청사』

2. 저서 및 논문

강재언, 『제주도 유배기의 김윤식』, 『탐라문화 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8.

고창석·양진건, 『제주도 유배에서의 면암 최익현의 교학활동연구』, 『탐라문화』 제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김균배 저, 오문복 역, 『근재북학일기』, 북제주문화원, 2005.

- 김동진, 『제주인의 3·1운동과 그 영향』, 『탐라문화』 1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김문주, 『농은문집』, 북제주문화원, 2004.
- 김봉옥, 『해제: 김명식기고문 제1차대전후 세계사』, 『제주도사연구』 6, 1997.
- 김봉현, 『제주유인전』, 국서간행회(동경), 1981.
- 김양식, 『1901년 제주민란의 재검토』, 『제주도연구』 6, 1989.
- 김찬흠, 『정의현감 김문주 가문에 대한 관견』, 『농은문집』, 북제주문화원, 2004.
- 김창후, 『재일 제주인 항일운동의 연구과제』, 『제주도사연구』 6, 1997.
- _____, 『재일 제주인과 동아통항조합운동』, 『제주도사연구』 4, 제주도사연구회, 1995.
- 김형식 저, 오문복 역, 『혁암산고』, 북제주문화원, 2004.
- 박찬식, 『일제하 제주도 민족해방운동 주도세력의 성격』, 『제주항쟁』, 실천문화사, 1991.
- _____, 『일제하 제주지역의 청년운동』, 『제주도사연구』 4, 제주도사연구회, 1995.
- _____, 『한말 제주지역의 천주교회와 제주교안』, 『한국근현대사연구』 4, 1996.
- 박찬식, 『한말 천주교회의 제주교안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9, 1998.
- 양진건, 『개화기 제주도 교육사 연구』, 『제주도사연구』 4, 제주도사연구회, 1995.
- 양진건, 『면암 최익현의 제주교학활동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24권 제1호, 한국교육사학회, 2002.
- 염인호, 『일제하 제주지역 사회주의자들의 민족해방운동』, 『민족지평』. 1990.
- 제주도청, 『제주항일독립운동사』, 제주도지편찬위원회, 1996.
- 조성운, 『1898년 제주도 민란의 구조와 성격- 남학당의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전통사회의 구조와 변동』, 문학과 지성사, 1986.
- _____, 『제주도 근대사회운동의 재조명』, 『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 1989.
- 허호준, 『혁명가 김명식의 생애와 사상』, 『4·3과 역사』 제5호, 제주4·3연구소, 도서출판 각, 2005.

The Growth of the Jeju intellectuals in the Modern Age and Their Communication with the Outside World

Kim, Dong-Jun
(Professor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 Jeju intellectuals in the modern age recognized the trend of the world in a variety of ways like those in other provinces. They raised the regional and traditional problems of Jeju to the level of universal ones and tried to solve them more specifically. Though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s an island restricted their communication with intellectuals in Seoul, they could keep in contact with them through some deportees such as Choi Ik-hyun or Kim Yun-sik.

In addition, the brothers, Kim Eung-jeon and Kim Eung-bin, frequently visited Seoul and met Min Tae-ho and the Taewongun(a regent), which enabled Jeju intellectuals to have more connection with those in Seoul. The brothers belonged to the Kimhae Kims Jocheon Yidong family group of the so-called Jocheon Kims.

Kim Yun-sik and Kim Eung-bin led the 204th poetry club ‘Gyulwon’, which served as a place of discussion, where Jeju intellectuals and those in Seoul could share their consciousness. The central consciousness was represented by Kim Yun-sik and his follower deportees and the Jeju local one by Kim Eung-bin, Son Du-ok and Kim Hee-jeong. So the poetry club ‘Gyulwon’ played the role of communication of the intellectuals in Seoul and those in Jeju.

In the center of Jeju intellectuals were always placed the intellectuals of Jocheon birth. They always realized the situations of the world by keeping in close contact with Jocheon residents in Seoul and Osaka in Japan.

[Key Words]

Jeju, Jocheon, Choi Ik-hyun, Kim Yun-sik, Kim Eung-bin, Kim Myeong-sik, Intellectuals, Outside World, Communication

K C I

논문투고일 : 2008년 6월 30일 / 논문수정일 : 2008년 7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08년 7월 22일